https://doi.org/10.18856/jpn.2022.28.2.009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 속 재벌 표상*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 박범신의 『형장의 신』을 중심으로

안혜연**

1. 들어가며
2. 타락한 상속자에 대한 복수와 정의
3. 모성과 맞바꾼 성공을 향한 욕망
4. '재벌'의 가족주의와 상속 경쟁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 속 재벌 표상을 분석하여 당대 대중들의 재벌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재벌을 통해 당대 사회문제를 다룬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1979)와 박범신의 『형장의 신』(1982)은 '정의'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재벌 가부장의 지위 '상속'이라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추리소설이다.

이 시기 추리소설은 현실의 사회 문제 및 사회구조 변화를 담아내는 한편,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회복 및 가부장 지위 계승 문제를 전면화하

* 이 논문은 반교어문학회 170차 학술대회 〈2020년대 한국어문학의 논점들〉(2022.4.30.)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원고의 방향을 정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귀중한 조언을 주신 송치혁 선생님과 익명의 심시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 수료

는 특징을 보인다. 『갈 수 없는 나라』의 남성 주인공은 부도덕한 재벌2세에 대한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지만, 범죄자가 되어 체포 되면서 오히려 현실에서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라는 문제를 보여준다. 『형장의 신』은 고아인 남성이 재벌 후계자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무한경쟁 속에 내몰린 남성주체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남성 인물들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한국추리소설의 여성 범죄자들은 완전범죄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다. 『갈 수 없는 나라』의 여성 주인공은 남성 인물들이 끝내 놓지 못하는 도덕적 명분이나 가정 내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으며, 성공과 신분상승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직시하고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범죄자인 여성을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죄하려 하지만 작가의 의도를 초과한 여성의 욕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명하였다.

(주제어: 한국추리소설, 재벌, 경쟁, 욕망, 정의, 팜므파탈, 가족주의, 가부장제, 조해일, 박범신)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 속 재벌 표상을 분석하여 당대 대중들의 재벌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80년대는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1974)을 시작으로 『제5열』(1979), 『갈 수 없는 나라』(1979). 『백색인간』(1982), 『형장의 신』(1982) 등 추리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주요 대중서사 장르로 자리 잡은 시기이다.[1] 주목할 점은 이 시기 한국추리소설에 재벌 2세는 물론, 대기업 간

부, 사회 명사, 유산 상속녀 등 재벌과 부유층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추리소설은 "기분전환용 오락소설"이지만, 이 오락에는 "사회적, 감정적 이유"가 담겨 있다.[2] 따라서 추리소설 속 재벌과 부유층의 등장은 사회문화적 분석을 요한다.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추리소설을 '범죄 스토리'(무엇이 일어났는가)와 '조사 스토리'(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이중 구조로 설명한다. '범죄 스토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설이 시작되면 끝난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소설에서 '범죄 스토리'는 탐정의 조사과정('조사 스토리')을 통해 제시될 수밖에 없다.[3] 서구의 추리소설은 범죄자가 중심이 되는 '범죄 스토리'보다 탐정이 이끌어 가는 '조사 스토리'에 방점을 찍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의 고전추리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Conan Doyl)나 포와로 시리즈(Agatha Christie)가 대표적이다. 이 소설에서 명탐정은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에 관한 발언을 독점한다. 이로 인해 독자는 "범죄자의 과거사에 흥미를 보이거나 범죄행위에서 긴장감을 느끼기보다는 탐정의 추리와 수사과정에 집중"[4]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추리소설은 "추리방식이 드러나 서사구조를 통해 발달하지 않고 주로 범죄와 그것을 둘러싼 인물을 통해 인지되어온 경향이 강"하다.[5] 즉 탐정이 이끌어 가는 '조사 스토리'보다 범인이 중심이 되는 '범죄 스토리'가 더 강조되고 선호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사

1) 〈뿌리내리는 추리문학〉, 『동아일보』, 1979.12.12., 5면.
2) 줄리언 시먼스, 『블러디 머더』, 김명남 옮김, 을유문화사, 2012, 27-30쪽.
3) T. 토도로프, 「탐정소설의 유형」, 『산문의 시학』, 신동욱 옮김, 문예출판사, 1992, 49-51쪽.
4) 계정민, 『범죄소설의 계보학』, 소나무, 2018, 145쪽.
5)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와 탐정의 존재론」,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24쪽.

회파 추리소설(社会派推理小説)'이 한국에 수용되면서 한국추리소설의 주요한 경향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6] 일본의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7]가 구축한 사회파 추리소설은 '트릭'이 아니라 '동기'를 우선시하며, 동기를 사회성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즉 평범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일상적 · 사회적 환경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추리소설 속의 다양한 범죄들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정치 · 사회 · 문화적 변화에 따라 계속 재정의 된다. 에르네스트 만델(Ernest Mandel)은 추리소설이 "범죄 자체의 역사를 반영"[8] 한다고 이야기한다. 19세기 이전 이른바 뉴게이트 소설(Newgate Fiction)의 주인공인 의로운 반역자 영웅들이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전개와 함께 부르주아의 사유재산을 공격하는 범죄자가 되고, 미국 금주법(1920) 시행으로 갱스터 범죄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스파이 소설을 등장시켰다. 이렇듯 정치 · 사회 · 문화적 변화가 추리소설의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 속 재벌의 등장은 정부의 특혜와 지원으로 성장한 재벌이 경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

6) 사회파 추리소설의 한국 수용에 관해서는 안혜연, 「마쓰모토 세이초 추리소설의 한국 수용－번역과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사이(SAI)』 2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참조.

7) 마쓰모토 세이초(1909~1992)는 1951년 41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시히 신문(朝日新聞)에서 주최한 「백만 인의 소설」 공모에서 「사이고사츠(西郷札)」가 3등으로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한다. 그 후 1953년 「어느 「고쿠라 일기」전(或る「小倉日記」傳)」으로 제28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며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된다. 1958년 「점과 선(点と線)」, 「눈의 벽(眼の壁)」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는 사회파 추리소설 작가의 입지를 굳히며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낮은 학력, 많은 나이에 프로 작가가 된 그는 '인간 타자기'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堀啓子, 『日本ミステリー小説史』, 中央公論社, 2014, 233-235쪽 참조.

8)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이동연 옮김, 이후, 2001, 63쪽.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종합무역상사제도 등은 재벌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자유화', '개방화'를 표방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벌들의 자본 집중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재벌의 지배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9] '욕망'과 '경쟁'을 통한 끝없는 자본 증식이라는 재벌의 성장 논리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각 개인들은 스스로를 자원으로 계발하는 '성과주체'로 거듭났으며, "'성장/발전'의 가치를 자기욕망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10] 그러나 "서구의 기업들과 같이 '창업가 정신(entrepreneuership)'이나 제품 · 서비스 · 기술상의 혁신성보다, 정치권력과 긴밀하게 유착"[11]하며 성장해 온 한국의 재벌들은 그들의 성공이 공정한 경쟁과 경영능력이 아닌 부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이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재벌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양가적인 것이었다. 성공에 대한 욕망과 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진 대중들에게 재벌은 경쟁의 최종 승리자이자 계급의 최상위층에 도달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은 경쟁으로 부를 축적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는 부정한 존재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가족 승계만을 이어가는 폐쇄적인 재벌의 가족 구조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 신비스러운, 그래서 대중의 저속한 상상력을 부추기는 것이기

9) 김윤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고도성장과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한울, 2012, 162-163쪽; 박찬종, 「한국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기원－부마항쟁과 과주항쟁 이후의 경제정책 전환」, 『사회와 역사』 117, 한국사회사학회, 2018, 110쪽.

10)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강의 1978~79년』, 심세광 · 전혜리 · 조성은 옮김, 난장, 2012, 319-321쪽; 이상록, 「동기부여와 인간개발, 자기관리형 인간의 탄생: 1970~80년대 한국에서 인간개발 담론과 '성과주체' 생산」, 『역사비평』 132, 역사비평사, 2020, 284-285쪽.

11) 장진호, 「한국 재벌과 '무책임의 경제'」, 『역사비평』 108, 역사비평사, 2014, 95쪽.

도 했다.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1979)와 박범신의 『형장의 신』(1982)은 재벌을 소재로 당대의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파 추리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작품 후기를 통해 추리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내가 바란 것은 **추리소설의 형식을 빈, 한편의 사회소설**을 쓰는 일이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에 가장 효과적인 형식으로서 추리소설의 형식을 택한 것뿐이었다. 내가 이번 소설에서 중점을 두어 드러내보려고 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어떤 절망적인 부패의 냄새**이다.[12]

> 현대의 범죄는 배고프고 헐벗어서가 아니라 **강한 자, 배부른 자가 더 강하고 더 배불러지기 위하여 유희처럼 저질러지고** 있다는데 그 비극성이 짙다. 현대 문명의 속성이다.
>
> **추리소설 형식**을 취한 건 살인이라는 소재를 소화 흡수하는데 그 기법이 가장 적절할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다.[13]

조해일과 박범신은 "절망적인 부패의 냄새", "강한 자, 배부른 자"에 의해 "유희처럼 저질러지"는 사회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추리소설'을 선택했다고 밝힌다. 또한 이 두 소설은 "추리소설 스타일의 신작 장편"[14], "박범신 본격추리소설"[15]과 같은 광고문구가 보여주듯 추리소설로 인식되었다.[16]

---

12) 조해일, 「후기」, 『갈 수 없는 나라』 하권, 삼조사, 1979, 723-724쪽. 강조는 인용자.
13) 박범신, 「작가의 말」, 『형장의 신』, 행림출판, 1982, 341쪽. 강조는 인용자.
14) 〈갈 수 없는 나라〉 광고, 『동아일보』, 1979.5.4., 3면, 하단광고.
15) 〈형장의 신〉 광고, 『조선일보』, 1982.7.15., 3면, 하단광고.
16) 1983년 한 기사는 추리소설 붐으로 "순수소설을 쓰던 작가들까지도 추리소설에 손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병주(『미완의 극』), 황석영(「심판의 집」), 조해일(『갈 수

조해일의 추리소설 『갈 수 없는 나라』는 재벌 2세들의 성적 타락과 방종, 그들에 대한 한 남성의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은 『중앙일보』에 1978년 3월부터 1979년 3월까지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른다. 이후 1983년 11월에는 MBC 〈베스트셀러극장: 갈 수 없는 나라〉로 드라마화 되어 방영되기도 했다. 1982년 출간된 박범신의 『형장의 신』은 고아 출신 남성의 성공과 계급 상승에 대한 강렬한 욕망, 출생의 비밀과 신분 세탁,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과거의 비밀, 재벌가의 상속을 둘러싼 암투 등 1980년 추리소설을 특징지을 수 있는 모티프를 담고 있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1970년대 후반~80년대는 럭키/금성, 삼성, 현대 등의 대표적인 재벌들의 2세 승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17] 재벌 2세들의 타락과 비윤리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다.

본 논문은 위 두 작품을 중심으로 1970년대 후반~80년대 추리소설 속에 나타난 재벌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970년대 재벌을 다룬 대표적인 소설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76)이 재벌과 노동자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선악의 대립구도[18]로 그려내고 있다면 『갈 수 없는 나라』와 『형장의 신』 각각 '정의'에 대한 대중의 환상, 재벌 가부장의 지위 '상속'이라는 문제를 다루며 재벌에 대한 대중의 양가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다. 특히 1979년과 1982

없는 나라』), 박범신(『형장의 신』), 표성흠(『낙동강 오리알』), 정건섭(『덫』)의 소설을 언급하고 있다; 〈불황 출판가 추리소설 바람〉, 『동아일보』, 1983.12.12., 7면.

17) 〈심층 취재 대기업 〈23〉 '창업시대'서 '수성시대'로〉, 『동아일보』, 1984.5.30., 5면; 〈대부분 아들 형제 등 '혈연승계' 재벌들의 기업상속－분가 유형〉, 『조선일보』, 1987.11.21., 4면; 〈선진국 압력－노사분규 속 2세 경영인 시대 개막〉, 『조선일보』, 1987.12.22., 13면.

18) 양수, 「1970년대 '재벌'의 문학적 표상 및 의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12쪽.

년 사이에 일어난 정권교체와 경제체제 변화에 주목하여 소설의 범죄와 살인 동기, 주요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재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욕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 할 수 있을 것이다.

2. 타락한 상속자에 대한 복수와 정의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는 Q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재벌 2세인 이상철이 댄스타임 도중 심장에 과도가 꽂힌 채 살해되면서 시작된다. B일보 사회부 햇병아리 기자 한동희는 선배 마상준과 함께 우연히 이 나이트클럽에 갔다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다음날 이 사건을 꼼꼼하게 기사화 한다. 기사가 나간 이후 한동희에게 '정직한 시민'이라는 이름의 발신인이 보낸 범죄 예고 편지가 도착한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강력계 형사이자 한동희의 연인인 반경식도 범인으로부터 같은 편지를 받게 되고, 이 연인은 각자 형사와 기자로서 서로가 얻은 정보를 교환하며 '정직한 시민'이라는 범인을 쫓는다. 그리고 범인의 예고대로 '오인방'의 멤버가 한 명씩 살해되기 시작한다.

'오인방'은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에 눈덩이처럼 규모가 커진 재벌급 회사의 경영주 2세"[19]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8년 전 '신애'라는 여성을 납치해 집단 강간한 후 그녀를 자살로 내몰았다. 8년이 지난 현재 이들은 아버지의 회사에 임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비밀 요정에서 포르노를 보며 여자 연예인과 정사를 벌이거나 여자를 유혹하고 밀회 여행을 떠나는 등 방탕한 생활을 계속한다.

---

19) 조해일, 『갈 수 없는 나라』 상권, 삼조사, 1979, 22쪽; 이하 이 작품에서 인용할 경우 본문에 권수와 쪽수만 표기함.

소설이 묘사하는 이러한 오인방의 모습은 '타락 재벌 2세의 표본'이 된 일명 '박동명 사건'(1975)[20]을 떠올리게 한다. 박동명 사건 이후 신문들은 재벌 2세들의 호화 방탕한 사생활, 해외 불법 이민, 세금 탈세 등을 계속 기사화했고, 재벌들의 생활상과 도덕성은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사회 이슈가 되었다.

한국의 재벌은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기업'이라는 공적인 영역 접합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21]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족주의를 보여주는 집단이다. 재벌 기업을 '왕국'으로 후계자 선정을 '세자 책봉'으로, 총수의 자리를 '왕위'에 비유한 기사[22]에서도 알 수 있듯 재벌 2세들은 재벌의 총수라는 상징적 가부장의 지위를 상속할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경쟁이나 능력과 같은 근대적인 가치가 아닌 혈연이라는 전근대적인 가치에 의해서이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경쟁에서 생존해야하는 대중들에게 재벌 2세들의 지위 승계와 비윤리적인 행위는 자연스럽게 이들이 기업의 총수로서 또 가부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23]

---

20) 박동명 사건은 1975년 6월 거액의 달러를 해외에 유출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시온그룹 장남 박동명이 구속된 사건으로, 구속 당시 그가 한 여배우와 함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후 그의 사치, 화려한 여성 편력 등 방탕한 사생활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 또한 그가 '칠공자'라는 재벌 2세 모임을 만들어 여러 여자 연예인, 여대생들과 관계를 맺었음이 알려지면서 그는 '타락 재벌 2세의 표본'이 되었다. 〈타락 재벌 2세의 표본, 박태선 장로의 장남 박동명씨 엽색 행각〉, 『경향신문』, 1975.6.11., 7면.

21) 핫토리 토미오, 『일본이 본 한국의 기업경영과 재벌』, 유한성 · 국중호 옮김, 평화사, 1991, 41쪽; 김윤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고도성장과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한울, 2012, 122쪽.

22) 〈세상 이렇습니다 〈이창을 통해 본 직업인의 실상 〈150〉 사장(5) 2세 시대의 등장〉, 『경향신문』, 1979.6.13., 5면.

23) 한 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자격요건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유독 기업에서만은 그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주의 자격 규제를"검토해

오인방의 리더인 김광배는 멤버 두 명이 잇달아 살해되자 8년 전 그들이 저지른 사건과 이 살인사건이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짐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신입 여비서를 유혹한다. 그녀와 저녁에 만나 "진행할 스케줄"을 떠올리며 문득 어떤 여자든 유혹할 수 있는 혜택을 준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 새삼 아버지가 고마웠다. 이 모든 혜택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존경은 못받는 터이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으랴.
>
> 그러나 그가 아버지 생각을 한 건 잘못이었다. 아버지에 관한 생각은 곧, 아버지들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 친구들의 모임인 〈오인방〉에 관한 생각으로 발전했으며 그러자 애써 피했던 생각이 다시 그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8년 전의 한 지점이 손에 잡힐 듯 선명히 눈 앞에 떠올랐던 것이다.(상, 267~268쪽)

그러나 김광배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결국 그가 오인방의 일원으로서 저질렀던(그러나 잊고 있었던) 8년 전의 악행을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재벌 2세로서 누리는 혜택과 특권을 떠올리고 이를 8년 전 사건의 기억과 연결 짓는 김광배의 의식의 흐름은 그들의 아버지들 역시 "비겁한 수법"(하, 651쪽)으로 부를 축적했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과 연결된다.

첫 번째 피해자 이상철의 아버지는 아들이나 자신에게 원한 같은 걸 품을만한 사람은 없냐는 형사의 질문에 "우리 집안은 어느 누구하고 원

볼 만한 문제라고까지 지적한다. 〈재벌 2세 탈선, 이대로 좋은가〉, 『조선일보』, 1975. 11.12., 5면.

수 따윌 맺을 그런 집안이 아니"(상, 53쪽)라고 잘라 말한다. 또 다른 피해자 박용기의 아버지인 D증권 회장 역시 "내가 누구와 원수 맺은 일도 없고 저 애도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두 번째 피해자 선우영일의 아버지가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던 신애 아버지의 회사를 도산시키고 결국 죽게 만든 장본인임이 밝혀지면서 자신은 물론 아들에게도 '원수'는 없다고 이야기한 아버지들의 말은 정당성을 잃는다. 이 소설이 연재를 시작한 1978년은 박정희 정권의 전폭적인 중화학 공업 지원과 특혜로 재벌들 연관사업 뿐만 아니라 비연관 사업까지 장악하기 시작한 시기이다.[24] 이러한 재벌들의 독점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한다. 신애 아버지가 정경유착, 자본독점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오인방의 아버지들에 의해 희생되고, 신애 역시 그들의 아들들에게 유린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소설의 설정은 죄의식도 없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들의 악행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적 복수'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다.

소설의 후반부에는 오인방에게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배수빈(본명 윤창배)의 사연이 제시된다. 그는 신애의 연인으로 그녀의 자살과 오인방이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자 법대를 그만두고 배수빈이라는 가명의 가수가 되어 오인방과 친해진다. 그리고 그들이 모험담처럼 신애를 강간한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복수를 시작한다.

---

24) 소설 속 신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사연은 오인방 멤버들(호텔(이상철), 건설(김광배), 증권(박용기), 식품(선우영일), 자동차(최명곤))의 회사의 성장과 맞닿아 있다. 1973년 포항제철소 제1기 공사가 완료되면서 조강생산이 시작되었고, 1975년에는 중동에서의 건설붐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승용차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여 '브리사', '포니' 등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중공업 사업을 진행한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며 성장했다. 핫토리 토미오, 『일본이 본 한국의 기업경영과 재벌』, 유한성 · 국중호 옮김, 평화사, 1991, 74-75쪽.

> 그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일단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가능하다면 정당한 방법에 의해 그들이 응징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미온적인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확실한 방법도 못되었다. (중략) 더욱이 그들은 사회적 신분의 힘을 이용하여 또는 그 밖의 다른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정도의 곤경쯤은 어렵잖게 모면해버릴 수 있을 것이었다. 따라서 경찰에 그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응징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았다. (중략)
>
> 창배는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직접 그들을 하나하나 응징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응징의 방법은 죽음이었다. 신애를 죽음으로 이끈 그들의 더러운 폭력에 값할 만한 잔인한 방법에 의한 죽음이었다.(하, 693-694쪽)

인용에서 보듯 윤창배는 오인방을 경찰에 넘겨 공적,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대신, 스스로 하나하나 응징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이유는 재벌 2세가 가진 “사회적 신분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인방이 8년 동안 이 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적인 살인을 한 것이 아니며, 신애 강간에 대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망을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가 복수할 수 있는 길은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직접 단죄하는 것뿐이다.

오인방을 차례로 살해한 후 반경식 형사에게 체포된 윤창배는 묵묵히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그는 재판장에서 오인방의 멤버 중 김광배 한 명만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오인방에 대한 자신의 복수를 공개적으로 완성한다. 결국 윤창배가 사형을 선고 받자 반경식은 그가 “사회가 저지르고 있는 어떤 커다란 범죄의 희생자”(하, 720쪽)가 아닐까 회의하며, 그를 체포한 자신에게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을 그만 두고

정치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갈 수 없는 나라』는 윤창배의 복수, 반경식의 회의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소설은 '자격 없는 상속자'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재벌의 가족 승계를 단절시키고 사적 복수를 완성한 후 법의 처벌을 (신애를 위한) 자기희생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윤창배의 모습을 통해 '정의는 살아 있다'는 감정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사적 영역, 또는 숭고한 사랑이라는 초월적 영역에서만 가까스로 실현 가능한 것이다. 소설이 선보이는 이러한 정의구현 방식은 현실에 닿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에서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결국 소설은 새로운 가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로 정의를 구현하다 순직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아 "정직하고 용기 있는 경찰"로 근무해왔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정치에 투신하고자 하는 반경식를 제시하며 마무리 된다.

3. 모성과 맞바꾼 성공을 향한 욕망

『갈 수 없는 나라』에서 오인방에 대한 복수극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는 이야기는 채나영이라는 여성의 완전범죄 스토리이다. 유명 패션모델인 채나영은 오인방 연쇄 살인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인 이상철의 정부(情婦)다. 그녀는 이상철이 살해되자마자 자신에게 다가온 또 다른 오인방 멤버 선우영일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선우영일이 두 번째로 살해되자 또 다시 다른 오인방의 멤버인 김광배와 관계를 맺는다. 이런 채나영의 '재산'은 바로 아름다운 자신의 신체이다.[25]

> 욕의를 벗어 옷걸이에 건 뒤 나영은 습관처럼 자신의 몸을 거울 속에 비춰 보았다. 조금 나른해보이긴 해도 여전히 아름다운 몸이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허리와 배의 선에 만족하고, 자신의 그 귀중한 재산이 아직 조금도 허물어지지 않았음에 안심하면서 욕조 속으로 들어갔다.(상, 109쪽)

채나영은 거울에 자신의 신체를 비춰보면서 그 가치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재산으로 인식하며 재벌 2세들과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녀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바라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이다. 가령 살인사건을 조사를 위해 형사가 집에 방문하기로 하자 그녀는 "남자들 앞에서는" "화려한 의상이 유리하"(상, 114쪽)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이상철이 죽은 후 자신을 유혹하는 선우영일을 보며 "누구든, 자유로와진 자신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에 미소 짓는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항복"하지도 "너무 버티"(상, 122쪽)지도 않으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여 전시한다. 여성이 거울에 자기 신체를 비춰보며 감상하고 재산/자산으로서 가치를 평가하는 장면은 다른 대중서사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엿보는 관음증적 장면들과는 다르다. 두 장면 모두 여성들의 신체가 남성 수용자들의 '볼거리'로 제시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여성을 훔쳐보는 관음증적인 장면들은 남성들의 무력함, 성적 능력 결여와 위축된 심리가 강조된다.[26] 반면, 여성이 자기 섹슈얼리티를 스스로

25)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을 내보이며 자신의 신체를 무기이자 자산으로 활용하는 여성 범죄자는 김성종의 소설 『백색인간』(남도, 1981)에도 등장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허난미'는 자신의 '육체'와 '미모'를 무기로 최고의 남성을 만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낙태를 선택한다. 결국 허난미는 재벌 회장과의 결혼식 하루 전 날 스스로 악행을 뉘우치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의 신분 상승 욕망을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있다.

수단화, 대상화 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서사에서 최종 '악'으로 자리매김 된다는 점에서 남성 독자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강화하는 성적 코드라 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대중소설 속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도드라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1970년대 대중소설에서 여성은 '창녀'나 '성처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1975)에서처럼 농촌에서 상경해 식모, 버스 안내양 등을 거쳐 창녀가 되는 하층 계급 여성의 삶을 통해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거나[27] 또는 『별들의 고향』(최인호, 1974)의 경아와 같이 사회, 정치적으로 소외된 남성들의 "환부를 감싸 안고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해주는 모성과 처녀성을 겸비한 '성처녀'"로 나타난다.[28] 이들은 산업화의 구조적 모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있거나 남성들의 비현실적인 환상을 실현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중요한 점은 이들의 욕망이 전면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0년대 대중소설의 여성들은 자기 신체(섹슈얼리티) 및 욕망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신 이들의 신체는 산업화의 모순과 같은 사회문제를 드러내거나 사회적 소외자나 부적응자로 등장하는 남성을 위로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성적 타락에 대한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 받는다.

그러나 채나영은 1970년대 대중소설 속 여성 인물들과는 달리 가난과 같은 불행이나 돌봐야 할 가족 등 독자가 공감 내지 (남성독자들이) 용

---

26) 노지승, 「남성 주체의 분열과 재건, 1980년대 에로영화에서의 남성성」,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88-94쪽. 참조.

27)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243쪽.

28) 이정옥, 「산업자본주의 시대, 여성의 삶과 서사」,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253쪽.

인할만한 '개인적 사연'을 가지고 있지 않다.[29] 채나영은 대전에서 5급 공무원의 딸로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배우가 되기를 꿈꾸는데, 그 이유는 "재벌 집안의 귀공자"(상, 156쪽)와 결혼하기 위해서다. 그녀의 목표는 "자신의 미모와 아름다운 몸매를 자산으로 사회의 화려한 중심부로 뛰어오르려는 것"(상, 233쪽)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는다.

채나영은 과거에 비밀요정에서 만난 청년 사업가를 통해 재벌 부인의 꿈을 이루려 했지만, 그가 사기꾼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나영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려 하지만 임신 7개월인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최종적인 파멸로부터 구할 마지막 길"이자 "한 번 무참히 꺾인 자신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상, 237쪽)을 선택한다.

>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핀 다음, 근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맨홀 뚜껑을 열었다. (중략) 열린 뚜껑 속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을 향해 아기의 작은 몸을 놓았다. 짧은 순간이 흐른 뒤에 그 어둠의 깊이 모를 바닥으로부터는 짧고 둔한 마찰음 하나가 들려왔다.(상, 239쪽)

채나영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맨홀 속에 유기한다. 몇 년 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권오규라는 남자가 이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며 원치 않는 관계를 요구하자 호텔 창문에서 밀어 살해한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오인방의 멤버 김광규까지 살해한다. 이처럼 채나영

29) 1970년대 호스티스물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파는 이유는 사연이 깊다. 남동생이나 오빠의 공부를 위해서 또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사적 사연이 주어진다. 1980년대 추리소설에는 여성인물들에게 이런 사연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성인물은 오직 자신의 신분상승을 위해 신체를 이용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려진다.

의 살인은 앞서의 범죄를 덮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자신이 벌인 세 건의 살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완전범죄를 완성한다.

작가 조해일은 후기에서 '성의 교환가치화'와 '부에 관한 개념의 타락'을 비판하고자 "채나영을 힘을 들여 묘사"(하, 724쪽)했다고 이야기한다. 소설 속에 묘사된 채나영은 "남성들에게 쾌락과 관능의 완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위험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양가적 성향"[30]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팜므파탈'이라 할 수 있다. 채나영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섹슈얼리티로 남성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남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대가로 그녀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모성'의 박탈이다. 소설은 '영아 살해'라는 범죄를 자신을 파멸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합리화하는 채나영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어머니의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오인방 중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조해일이 의도한대로 여성이 노동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것은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남성들로 하여금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신의 욕망과 섹슈얼리티를 조절하고 상황을 예상하고 계산해 내면서 완전범죄에 성공하는 채나영의 모습은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일이든 "결과 따위를 의심하거나 예측"하지 않는 오인방－남성 재벌 2세들의 태도와 대비된다.[31] 자

30) 소영현, 「팜므파탈이라는 장치와 젠더화된 사회적 집합감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54쪽.

31) 소설 속에서 '오인방'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과잉된 성욕만을 가진 인물들로 그려진다. 그들은 오인방의 멤버인 이상철이 죽은 후 직후 그의 정부였던 모델 채나영을 누가 선점할까를 놓고 가벼운 말다툼을 벌이고, 멤버가 차례로 살해되

신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완전 범죄에 성공하는 채나영의 모습은 작가의 의도를 초과하면서, 정치에 투신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형사 반경식의 막연하게 희망적인 태도보다 더 강렬하게 남는다.

흥미롭게도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에는 자신의 신체(섹슈얼리티)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 완전범죄를 만드는 여성들이 빈번히 등장한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과 상관없이 모성이나 아내로서의 지위 등 사회가 강제한 여성다움을 포기한 채 이들이 드러내는 강렬한 성공 욕망은 남성들이 도덕성이나 사랑, 정의에 집착하는 모습과 대비를 이루며 그 자체로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덧붙여,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치밀하게 계산하는 이 시기 한국추리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모습은 (여전히 도덕성과 명분에 집착하는 남성들에 비해) 새롭게 도래한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재벌'의 가족주의와 상속 경쟁

1980년부터 시작된 자유화 정책은 "국가 주도 경제개발의 종말과 재벌로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 이동"[32]을 가져왔다. 이처럼 재벌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면서[33] 1980년대에는 이전

기 시작하자 초조해 하면서도 그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여성들과 정사를 벌인다.

32)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160쪽.

33) 이른바 5대 재벌(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의 부가가치 생산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3년에는 3.5%, 1978년에는 8.1%, 83년에는 10%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핫토리 토미오, 『일본이 본 한국의 기업경영과 재벌』, 유한성 · 국중호 옮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다.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선경과 같은 이른바 '5대 재벌'의 창업 과정, 위기 극복, 무용담 등을 논픽션 형식으로 연재하는 시리즈[34]들이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하고 재벌의 성공 신화를 다룬 『서울의 지금 몇시인가』, 『재벌과 정치』, 『재벌25시』 등이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다.

또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소설인 야마사키 토요코(山崎豊子)의 『불모지대(不毛地帯)』가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재벌들의 성공담을 다룬 기업소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 특히 40세의 늦은 나이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 자리에 까지 오른 인물의 성공담을 다룬 『불모지대』는 "회장님의 특별지시! 「불모지대」를 읽어라!」"[35]라는 광고 문구가 보여주듯 샐러리맨들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다.[36] 직책이나 승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실력'이 되기 시작하고, '유능'과 '근면'이 '바람직한 한국인상'으로 자리 잡으면서[37] 이제 샐러리맨들에게는 "자기발전을 위해여 끊임없는 훈련과 책임을 지는 자세"[38]가 강조되기 시작한다. 성공과 처세, 승진의

김, 평화사, 1991, 92-93쪽

34) 〈산업사회의 성장 이면사 거탑의 내막〉, 『경향신문』, 1982.3.8., 3면; 〈재벌 25시〉, 『조선일보』, 1982.3.9., 3면.

35) 야마사키 토요코, 『불모지대』 1권, 박재희 옮김, 청조사, 1980, 뒤표지.

36) 이 소설의 모델이 실제로 이토추 상사 평사원에서 시작해 총수 자리에 오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지마 류조는 그의 자서전에서 1982년 한국을 방문해 북한군이 파놓은 땅굴을 견학하던 중 한국 군인 4, 5명이 『불모지대』를 들고 책에 싸인을 해달라고 요청해 "이건 소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싸인을 해주었다는 후일담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불모지대』가 샐러리맨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瀬島龍三, 『幾山河: 瀬島龍三回想録』, 産經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1995, 422쪽.

37) 〈경향신문 창잔 38돌 샐러리맨 의식조사 실력 중시 사회로 가고 있다〉, 『경향신문』, 1984.10.6., 1면; 〈경향신문 6.25특집 전국 고교 대학생 의식조사〉, 『경향신문』, 1983.6.24., 7면.

38) 로저 L. 자넬리·임돈희, 「한국 한 재벌회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관행연

생존경쟁에 내몰린 샐러리맨들에게 재벌은 “경영인들의 감각과 노력, 그리고 비정의 비즈니스사회에서의 생존철학”[39]을 가르쳐주며, “숨소리와 사고 패턴, 손짓 발짓”[40]까지 닮아야 할 성공의 롤모델이 된다.

1982년 출간된 박범신의『형장의 신』은 성공을 이룬 주인공이 자신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을 살해하면서 시작된다. 이 서사는 일본 고도성장기에 베스트셀러였던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모래그릇(砂の器)』, 모리무라 세이치(森村誠一)의『인간의 증명(人間の証明)』과도 닮아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화려하게 성공했지만,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이 나타나자 불안함에 살인을 저지른다. 이러한 서사를 가진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성공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일본 고도 성장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불안함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41]『형장의 신』역시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남성주체의 ‘경쟁’과 ‘자기 능력 증명’ 통한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이 가져오는 불안이라는 ‘기묘한 불균형’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소설은 K그룹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X회관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임숙영이라는 여성이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X회관의 정원에서 두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K그룹 총수인 곽영범 회장과 관계를 맺던 비서 경옥까지 살해된다. 사건을 담당한 민형사는 이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임을 직감하고 첫 번째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구」,『한국문화인류학』28, 한국문화인류학회, 1995, 181쪽.

39) 〈산업사회의 성장 이면사 거탑의 내막〈1〉 미포조선소(1)〉,『경향신문』, 1982.3.8., 3면.

40) 〈재벌 25시(1) 삼성 이병철 씨〉,『조선일보』, 1982.3.9., 3면.

41) 우치다 류조, 이현희 옮김,「가파른 성장과 미스터리」, 시마조노 스스무 외,『역사와 주체를 묻다』, 소명출판, 2014, 88-103쪽 참조.

'재래종 풋고추'를 주요 단서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K그룹은 K건설을 모기업으로 식품, 종합상사, 중공업, 관광까지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굴지의 기업이다. 이 기업의 총수인 곽영범 회장은 가장 아끼던 막내아들을 잃은 후 장남 곽경호와 차남 곽인엽 중 한 명에게 기업을 물려주려 한다. 소설의 초반부는 아버지 곽회장에게 후계자로 선택받기 위한 장남과 차남의 암투를 다룬다. 결국 곽회장은 차남 곽인엽을 후계자로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뛰어난 "기업 경영 솜씨"와 "능력" 때문이다. 그는 K건설의 사장 취임한 후 "과감한 경영쇄신과 치밀한 업무 전략"[42]으로 K건설을 눈에 띄게 성장시킨다. 소설 속 장남과 차남간의 상속을 둘러싼 경쟁은 이제는 장자라는 '지위'보다 '능력'이라는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암시한다.[43] 아버지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적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 속 형제의 경쟁 구도는 당시 승진을 위해 무한 경쟁을 벌여야 했던 샐러리맨들에 대한 비유로 읽힌다. 승진의 기준이 장자 상속과 같은 "연공서열위주"에서 "능력업적 평가"로 옮겨가면서 "탈락", "도태"[44]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아버지' 기업에 자신의 유능함을 끝없이 증명해 내야하는 것이다.

---

42) 박범신, 『형장의 신』, 행림출판사, 1982, 114쪽; 이후 이 작품을 인용할 경우 본문에 쪽수만 표기함.

43) 한국의 재벌은 '가산(家産)'의 개념을 갖지 않고 세대 분할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매 세대마다 누가 상속권을 물려 받을 것인가를 두고 형제, 가족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70년대 후반 삼성과 같은 재벌이 장자 상속이 아닌 경영 능력을 기준으로 3남에게 상속권을 물려준 것을 '변혁'이라고 이야기 하듯 재벌 가족 안에서도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핫토리 토미오, 『일본이 본 한국의 기업경영과 재벌』, 유한성 · 국중호 옮김, 평화사, 1991, 41쪽; 〈세상 이렇습니다 〈이창을 통해 본 직업인의 실상 (150) 사장(5) 2세 시대의 등장〉, 『경향신문』, 1979.6.13., 5면.

44) 〈30대 회사인간 (6) 희비의 쌍곡선－승진〉, 『동아일보』, 1985.4.13., 9면.

그러나 곽회장이 후계자로 선택한 곽인엽이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자,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곽인엽은 사실 김영호라는 인물로 첫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임숙영, 그리고 '깜시'로 불렸던 진짜 곽인엽과 같은 고아원 출신이다. 이 고아원 원장은 원생들을 조별로 나눠 밭을 개간하도록 시킨 후 성적이 나쁜 조에게는 저녁을 주지 않았다. 조장이었던 김영호는 임숙영과 깜씨를 돌봐주며 친형제처럼 지낸다. 하지만 깜씨와 김영호가 각기 다른 조 조장이 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친형제'에서 '경쟁자'로 뒤바뀐다. 깜씨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겁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자 김영호는 이에 분노해 의도치 않게 그를 죽이고 만다. 이후 고아원을 나온 김영호는 깜씨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을 들고 곽회장을 찾아가 자신이 곽인엽이라고 속이고 그의 아들이 된다.

김영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곽회장의 퇴진을 앞당겨 '아버지'의 자리에 더 빨리 오르기 위해서이다.

> 진작부터 그는 그 점을 생각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를 이길 순 없어 약해지도 있던 곽회장은 임숙영 사건과 문형진 사건이 계속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극장 안에서 터짐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것은 그 사건의 장소를 극장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곽인엽이 예상했던 바였다. 곽인엽은 곽회장이 과연 무엇에 가장 인간다움 애정을 느끼는지 예의 검토하였다. (중략) X회관을 곽회장은 거의 성역처럼 생각하고 있었다.(295쪽)

곽회장이 가장 아꼈던 죽은 막내아들을 위해 지은 X회관은 곽회장의 '성역'이자 그 자신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김영호는 이 공간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모험'을 감행한다. 김영호가 벌이는 살인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다. 살인 흉기, 가짜 유서, 약물에 대한 지식, 자신

의 확고한 알리바이 등 모든 요소가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이다. 그리고 완벽한 살인을 한 건 한 건 성공시킬 때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그의 '모험'은 그를 후계자의 자리에 조금씩 더 가깝게 만들어 준다. 이런 상황은 살인을 아버지 자리라는 최종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미션(업무)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는 곽회장을 직접 죽이는 대신 그의 성역을 더럽히고, 주변 인물들을 살해하는 간접살인을 시도한다. 간접 살인이라는 복잡한 미션(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김영호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완벽한 일처리 능력을 인정받는 최종 테스트처럼 보이게 한다. 그는 살인에서도, 기업 경영에서도 무엇이든 "목적 수행에 철저"하게 성공해야만 새로운 가부장의 자리에 올라 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김영호는 곽회장이 쓰러지게 만드는데 성공하고 비로소 스스로에게 "너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309쪽)고 말하며 경쟁과 자격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김영호의 계획은 '아버지' 곽회장에 의해 실패하고 만다.

> 곽회장은 온갖 것에 환멸을 느꼈다. 그가 평생을 걸쳐서 피땀으로 이룬 기업, 그것이 낳은 것은 두 아들의 암투 이윈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K그룹이 결국 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동시에 그 K그룹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자신 때문에 파산하여 혹은 알거지가 되기도 하고 혹은 자살하기까지도 한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생각했다. 적은 월급으로 우애있고 슬기로운 자식들을 길러내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리고 또 그는 그가 기업을 거대하게 키워온 만큼, 세상의 어떤 다른 곳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도 생각했다.(257쪽)

곽회장은 마지막 순간 뜻밖의 회심을 하며 “그의 기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실로 고르게 환원되어질 것을 꿈꾸”(258쪽)면서 기부를 결심하고 유언장을 수정한다. 결국 김영호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살인죄로 체포된다. 그리고 김영호가 살인도 불사하며 K그룹을 물려받으려 했던 이유가 고아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미 10여 개의 고아원을 남몰래 후원하고 있었음이 밝혀진다.

소설은 김영호를 성품과 능력상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인물로 제시한다. 신분을 위장하고, 빠른 경영권 상속을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중에도 그가 줄곧 품고 있던 소망은 고아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이다. 이 점에서 그는 새로운 가부장으로서 도덕적 자격 또한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김영호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은 곽회장의 ‘진짜’ 아들이라는 자격이다. ‘혈연’이라는 가장 중요한 재벌의 상속 자격을 갖지 못한 김영호는 곽인엽으로 위장함으로써 요건을 충족시키려 하지만 이는 언제 정체가 들통 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살인사건(깜씨 살인)의 목격자인 임숙영은 재벌의 아들 및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부정하는 치명적인 존재가 된다. 소설 초반,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재래종 고추’는 임숙영이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그들이 일구고 개간했던 고추밭에서 가져온 것이다. 임숙영은 이 고추를 통해 과거 김영호의 정의롭고 따뜻했던 모습을 상기시키고자 하지만 결국 김영호에게 살해당한다.

‘고아’에서 ‘재벌’로의 강력한 계급 상승의 욕망을 드러내는 김영호의 기획은 연쇄살인이라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는다. 곽회장은 X회관에서 일어난 살인을 두고 “평생에 이런 수모는 없었”(52쪽)다고 이야기한

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신을 쓰러트리려는 아들의 도전에 대한 언급이자 다른 한 편으로는 가지지 못한 자의 계급 상승 욕망에 대한 불편함으로도 읽힌다. 애당초 가부장이라는 지위의 상속은 "핏줄은 속이지 못하는 것"(170쪽)이라는 곽회장의 말처럼 김영호에게는 불가능한 기획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꿈꾸었던 재산의 사회 환원은 문화재단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곽회장에 의해 이뤄진다. 가부장의 지위에 걸맞은 바람직한 역할은 누구에게도 승계되지 않고 원래 가부장에 의해 수행된다. 이는 곧 '혈연'이 아닌 김영호에게 가부장의 자리를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재벌의 강력한 의지처럼 보인다.

1970년대 후반부터 기업은 경영에 가족주의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한다. 1979년 『경향신문』에 실린 한 기사는 "몇몇 재벌기업들이 「XX그룹」 대신 「XX가족」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기 시작했음을 알리면서 "「직장을 내집처럼, 우리들은 한가족」"이라는 구호가 "사장들의 가장(家長)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전한다. 또 다른 기업 또한 "「전 직원은 한가족」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경영 지침의 제 1조"라 강조하면서, 그러한 지침의 실제 적용 예로 면접을 볼 때 "이기심이 드리운 얼굴"은 솎아내는 것, 회사의 단합을 방해하는 사적모임을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구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젊은 2세 경영인들의 경우에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 같은 직급의 동료들끼리라도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45] 재벌이라는 가부장 아래 직원들이 마치 전통적인 대가족처럼 서열에 따라 도열되는 형태를 지향하면서, 그와 동시에 실적주의, 능력주의를 표방한 경쟁 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

45) 〈세상 이렇습니다: 이창(裏窓)을 통해본 직업인의 실상 〈152〉 사장(7) 용병수하〉, 『경향신문』, 1979.6.15., 5면.

소설『형장의 신』은 도덕적 명분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지녔음에도 김영호에게 가부장 자리의 승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소설 말미에 제시되는, 그의 후원을 받아왔던 고아들이 감옥에 갇힌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암시되는 '형장(刑場)의 신(神)'이라는 자리이다. 이 소설은 사원들을 가족으로 호명하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할 것을 요구한 '기업 가족주의' 경영이 허상임을 보여주는 한편, 그러한 허상 속에서 자기 정체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1980년대 샐러리맨들의 상황을 전면화한다. 그리고 '재벌'은 위기의 상황에 '진짜' 혈연이 아닌 사원들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5. 나가며

1970년대 중반『최후의 증인』(1974)을 기점으로 한국의 추리소설은 일상성과 역사성을 담아내며 방향전환을 했다. 일상성이라는 특징은 추리소설의 리얼리티를 더하고 사회성이 두드러지는 소설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분단과 이념 대립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추리소설은 이러한 특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이후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은 역사성은 약화시키거나 장르적 설정으로 변환시키고, 현실의 당면한 사회문제들로 눈을 돌린다. 그리하여 재벌 기업의 부정과 비리, 타락상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소재로 삼은 소설들이 등장한다.

추리소설은 산업화 사회에 이어 새롭게 도래한 소비자본주의 사회, 재벌 중심 경제 체제의 문제를 첫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붕괴, 둘째

부정한 방식의 부의 축적에서 찾는다. 197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아버지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담론, 즉 가부장, 남성성의 위기 담론이 널리 퍼진다. 산업화 사회의 산업전사로서 국가 발전을 이끄는 아들이자 가정의 가부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폭력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국가를 대신해 새로운 가족 형상을 제시한 재벌 기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권위를 상실한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2세 역시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같은 인물 설정과 사건 제시를 통해 추리소설은 현실의 사회 문제 및 사회구조 변화를 담아내는 한편,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회복 및 가부장 지위 계승 문제를 전면화한다. 추리소설은 남성독자의 요구와 욕망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그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변화한 사회 구조와 거기서 비롯되는 사회 문제들을 다루면서, 부유층과 재벌들의 타락상과 반인륜적 범죄를 전면화한다. 이 소설들의 남성 주인공들은 사회 정의를 호소하면서, 사실 사회의 진정한 악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유층, 재벌이었음을 밝히며 때로는 이들을 직접 처벌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부르짖는 남성 주인공들은 모두 범죄자로서 체포되거나 가부장의 지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남성 인물들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한국추리소설의 여성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체포되지 않으며 완전범죄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남성 인물들이 끝내 놓지 못하는 도덕적 명분이나 가정 내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으며, 성공과 신분상승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직시하고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작

가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서사를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지만,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1980년대 들어) 새롭게 달라진 사회 질서에 여성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980년대 한국추리소설에서 여성 범죄자의 다양한 양상과 그 특징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범신,『형장의 신』, 행림출판사, 1982.

조해일,『갈 수 없는 나라』 상, 하, 삼조사, 1979.

『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

2. 논문과 단행본

계정민,『범죄소설의 계보학』, 소나무, 2018.

김윤태,『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고도성장과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한울, 2012.

김지혜,「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현대소설연구』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223-251쪽.

노지승,「남성 주체의 분열과 재건, 1980년대 에로영화에서의 남성성」,『여성문학연구』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223-251쪽.

로저 L. 자넬리·임돈희,「한국 한 재벌회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관행 연구」,『한국문화인류학』28, 한국문화인류학회, 1995, 167-198쪽.

미셸 푸코,『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강의 1978～79년』, 심세광 · 전혜리 · 조성은 옮김, 난장, 2012.

박유희,「한국 추리서사와 탐정의 존재론」, 대중서사장르연구회,『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박찬종,「한국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기원－부마항쟁과 과주항쟁 이후의 경제정책 전환」,『사회와 역사』117, 한국사회사학회, 2018, 79-120쪽.

소영현,「팜므파탈이라는 장치와 젠더화된 사회적 집합감정」,『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45-181쪽.

안혜연,「마쓰모토 세이초 추리소설의 한국 수용－번역과 TV 드라마를 중심으로」,『사이(SAI)』2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449-479쪽.

야마사키 토요코,『불모지대』1권, 박재희 옮김, 청조사, 1980.

양 수,「1970년대 '재벌'의 문학적 표상 및 의미: 조세희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에르네스트 만델,『즐거운 살인』, 이동연 옮김, 이후, 2001.

우치다 류조, 이현희 옮김,「가파른 성장과 미스터리」, 시마조노 스스무 외,『역사와 주체를 묻다』, 소명출판, 2014.

이상록,「동기부여와 인간개발, 자기관리형 인간의 탄생: 1970~80년대 한국에서 인

간개발 담론과 '성과주체' 생산」, 『역사비평』 132, 역사비평사, 2020, 193-231쪽.
이정옥, 「산업자본주의 시대, 여성의 삶과 서사」,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261-281쪽.
장진호, 「한국 재벌과 '무책임의 경제'」, 『역사비평』 108, 역사비평사, 2014, 91-119쪽.
줄리언 시먼스, 『블러디 머더』, 김명남 옮김, 을유문화사, 2012.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핫토리 토미오, 『일본이 본 한국의 기업경영과 재벌』, 유한성 · 국중호 옮김, 평화사, 1991.
T. 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신동욱 옮김, 문예출판사, 1992.
瀬島龍三, 『幾山河: 瀬島龍三回想録』, 産經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1995.
堀啓子, 『日本ミステリー小説史』, 中央公論社, 2014.

Abstract

Representation of chaebol in Korean mystery novels in the late 1970s and 1980s
– focus on Jo Hae-il, *The Country You Cannot Go* and Park Bum-shin, *The god of execution*

An, Heayun(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presentation of 'chaebol (conglomerate)' in Korean mystery novels in the late 1970s and 1980s, and to examine the public perception about chaebol. Jo Hae-il and Park Beom-shin's novels are texts that show public's fantasies about 'Justice' to social problems not only just for 'Inheritance' of the patriarchal status in chaebol.

The mystery novels of this period comprehensively describe social problems and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can be said to show the theme of restoration of patriarchal ideology and succession of patriarchal status. In Jo Hae-il's novel *"The Country You Cannot Go",* the male protagonist realizes justice through revenge for the immoral and debauched second generation of chaebol, but eventually becomes a criminal and reveals a social problem of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with state power. Park Beom-shin's novel *"The god of execution"* shows the anxious image of a male subject who is driven into infinite competition through an orphan trying to occupy the heir of a chaebol.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to the male protagonists, female criminals in Korean mystery novels in the 1980s often complete perfect crimes. In particular, the female protagonist in Jo Hae-il's novel does not dwell on the moral cause or status that male protagonists are obsessed with, and is calculating and rational. The two male authors tried to accuse the women who committed crimes as sexually and morally depraved, but contrary to their intentions, the women show strong desire. I wanted to reveal what these women's desires meant.

(Keywords: Korean mystery novels, chaebol, competition, desire, justice, femme fatale, familism, patriarchy, Haeil Jo, Beomshin Park)

논문투고일 2022년 5월 6일
논문심사일 2022년 6월 7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7일